



10월명월날

김정연

꽃들도
웃음물고
피어납니다

새들도
고운 목청
다듬습니다

아껴온
꽃향기랑
노래를 안고

기쁨속에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

저 하늘엔
천만송이
축포꽃바다

땅우에는
얼싸등등
어깨춤바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만세 만만세

온 나라가
설레이는
명절입니다

×

우리 행복
꿈만 같이
꽃피워주는

고마운
어머니당
일흔뉘살일날

해빛도
눈부신
푸른 하늘에

당기밭은
노을처럼
붉게 탑니다





해불대오 척척

류 경 철

손에손에 해불들고
형님누나 척척
경축광장 뒤흔들며
행진대오 척척

결사옹위 한마음
바다되어 흐른다
마음속에 안고살던
신념의 글발
불노을로 펼치며
해불대오 척척

위대한 대원수님들
받들어온 그 맘 안고
원수님따라서
천만대오 흐른다

해불봉 모여모여
굳은 맹세 새긴다



누가 왔나요

송 시 찬

빵빵 찾는 소리
누가 왔나요
사랑사랑 콩우유차
선참 왔어요

달려왔어요
날마다 찾는 소리
정말 좋아요
우리우리 애육원
온 나라가 찾아요
날마다 찾는 소리

노래갈아요
원수님 그 사랑
모두 안고 울려요

빵빵 찾는 소리
어디서 왔나요
동해의 물고기차



송도원에 솟은 집

변 혜 영

동해의 송도원에 등실 솟은 집
동화세계 펼쳐놓은 보물궁전이지요
아롱아롱 꽃분수 춤을 추는 집
바다속의 룡궁도 떠옴겨온 집

누가누가 살가요 정말 여기서
왕으로 불리우는 아이들이 살지요

누가누가 살가요 정말 여기서
하늘나라 달과 별도 놀러 오는 곳이지요

바다건너 먼곳에서 모여오는 집
랄랄라 노래하는 노래궁전이지요
온 나라 아이들 한목소리로
《세상에 부럽없어라》 노래하는 집

어른도 아이되는 신기한 이 집
하하호호 웃음솟는 웃음궁전이지요
재미나 구경하던 애기파도도
찰싹찰싹 손벽치며 달려오는 집

정말정말 좋아요 송도원의 야영소
고마운 우리 해님 원수님의 품이지요



소중한 책상

박 향 희

똑또르르—
굴러가는 수지연필도
얼른 슬쩍 떴게 하는
멋쟁이책상

원수님 우리 학교
찾아오시어

사랑담아 살펴보신
소중한 책상
참말 좋지
사각사각 고운 글씨
이 자리에선 5점꽃도
선참 피울듯

박사동이 고운 꿈
어서 피워라
날마다 속삭이는
소중한 책상



미래가 꽃피는 봄

박 은 경

남이야 옥이야 창문을 열자
멋있구나 우리 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눈감았다 슬쩍 뜨면 비행기를 탄것 같다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 평양 굽어보자

보이누나 아침마다 왕차들이 오는 길
새 교복 실은 차 줄지어서 오는 길
릉라도와 만경대의 유희장이랑
아동병원 애육원 사랑의 집들이랑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아이들의 집
행복의 첫자리에 세워준 크나큰 사랑
고마움에 목메여 다시다시 바라보니
아, 안겨오누나 당창전기념탑!

어머니 우리 당 그 품 그 손길이
이 세상 모든 행복 가슴가득 주었구나
세계를 향하여 꿈나래 펼치라고
하늘가에 번쩍 우릴 안아올렸구나



어머니의 품

김 백 송

우리우리 할머니도
어머니라 불러요
유치원 꼬마들도
어머니라 불러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은 친근한
어머니품이에요

밤깊도록 지켜주는
어머니의 눈빛처럼
우리모두 따뜻이
품어주고요

학교길 떠밀어주던
어머니의 손길처럼
희망의 고운 꿈도
펼쳐주어요

잠시라도 떨어지면
그리워 찾아요
그 품에 안기면
우리모두 웃어요

온 나라가 안겨사는
어머니의 품은
김정은원수님의
품이랍니다